

완도~제주 블루나래호 19일 첫 운항

여객정원 572명 1시간 40분 최단시간 항로

호화 쾌속선... 관광객 폭주 지역 경제발전 기대



▲일반실 3만1500원이며, 차량별 운임은 6만~9만원이다. 그동안 완도항을 이용해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은 연간 36만8450여명에 달한다.

(주)한일고속 관계자는 “완도~제

주항 항로구간이 전국에서 제주도를 갈 수 있는 최단거리 항로가 됐다”며 “국내 관광객들이 폭주할 것으로 보고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주)한일고속(대표 최석정)이 최첨단 장비를 갖춘 호화 쾌속 여객선을 도입, 완도~제주항 노선에 본격 투입해 관광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

한일고속은 영국에서 쾌속선을 도입해 지난 12월 23일 완도항에서 ‘블루나래호’(사진) 취항식을 갖고 만전의 선박 점검을 마친 후 오는 19일 오전 9시 첫 정기운항에 나선다.

‘블루나래호’(3032t)는 여객정원 572명과 승용차 84대를 싣고 34노트 속도로 완도~제주간을 1시간

40분대에 운항해 전국에서 제주를 갈 수 있는 최단거리 뱃길을 활짝 열었다.

완도항~제주항 정기 운항시간은 ▲1항차 완도 오전 9시 출항·제주 10시 40분 입항 ▲2항차 완도항 오전 3시 출항·제주 오후 4시 40분 입항한다.

또 제주항~완도항 운항시간은 ▲1항차 제주 12시 출항·완도 오후 1시 40분 입항 ▲2항차 제주 오후 5시 50분 출항·완도 오후 7시 30분 입항한다.

선박요금에는 ▲우등실 3만7500원

■ 새얼굴

“농·어촌 정주환경 개선에 주력”

김형용 농어촌공사 해남지사장



“농·어업인 소득증대와 농·어촌의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부임한 김형용(55) 한국 농어촌공사 해남지사장은 “내부 고객에는 신바람나고 보람있는 직장을, 외부 고객에는 감동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직원들은 능

동적인 변화의식을 고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남 출신인 김 지사장은 전남대와 전남대 대학원(농공학과)을 졸업했으며 지난 1977년 공사에 입사해 광주지사장, 진도지사장 등을 역임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성기자 dia@

목포대에 해양정책 지원 연구센터 설치

오늘 개소식 갖고 워크숍

목포대에 도서 해양정책을 지원하고 선도하는 연구센터가 설치된다.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은 17일 교수회관에서 도서 해양정책 연구센터 개소식을 갖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크숍도 연다.

연구센터는 30여년간 축적해 온 도서문화연구원의 독보적 기초연구성과를 토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서 해양정책을 지원하고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날 워크숍에는 일본 도서정책을

주도해온 이도(離島) 센터의 미키즈 요시(三木剛志) 학술부장이 이도센터 역할과 경험을 소개한다. 도서문화연구원 홍신기 교수는 도서 해양정책연구센터의 비전과 전망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은 지난 2009년 11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인문한국(HK) 연구소’로 선정돼 10년 동안 80여억 원을 지원받아 ‘섬의 인문학·공간인식 패러다임의 문명사적 전환’을 주제로 연구하는 섬과 바다에 관한 전문 연구기관이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불법 조업 중국어선 갈수록 흉포화

서해어업지도선 노후 장비에 단속 인력도 없다

단속반 승선 기피 현상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단속하기 위한 어업지도선의 장비와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6일 서해어업관리단(단장 정용균)에 따르면 지난 2009년에는 12건에 불과하던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건수가 2010년에는 60건, 2011년 170건 등 증가하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도선은 현재 15척 중 1000t급은 2척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500t급 미만으로 이 중 4척은 25년 이상 된 노후 선박이다.

또 총 근무인력이 256명으로 승선인원과 장비부족으로 날로 급증하고 횡포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중국 불법어선들의 지도·단속이 역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다 보니 단속반들은 8개 해역을 2교대로 지도선 1척당 연간 167일 운항하고 있어 이들의 피로 누적과 의욕상실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까지 따르고 있다.



중국 선원들이 쇠창살과 통나무를 들고 선박 난간에 난파된 선채 서해어업관리단의 단속을 방해하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 제공)

어기에 불법 조업 중국어선들은 쇠창살과 식칼 등의 살인무기로 단속반들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횡포가 심해져 가고 있는 심각한 실정이다.

이런 데다 중국선원 감초조치시차량 등 생필품과 이들을 장기간에 걸쳐 압송시 단속반에 대한 빈약한 식사지급 등 이에 따른 예산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직원들은 개인 사비를 털어 불법 선원들에게 생필품을 지급하고 있는 처지에 있다.

이토록 단속반들의 환경이 열악하다보니 가장 업무에 스트레스까지 겹쳐 사기저하는 물론 승선까지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중국선 불법조업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어업감독 활동비지원 확대와 불법선원들 감초 조치시 필요한 생필품 지원을 비롯해 압송요원들의 비상식량 지급 등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용균 서해어업관리단장은 “단속요원들의 고유 업무이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신변 보호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장비 보충 등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대안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완도 청산도 ‘슬로푸드 체험관’ 3월 개관

‘슬로시티’로 인증된 완도 청산도에 ‘슬로푸드(slow food) 체험관’이 오는 3월 문을 연다.

16일 완도군에 따르면 폐교인 청산중 동분교 건물과 관사를 리모델링해 음식 체험과 세미나, 숙박 등이 가능한 ‘슬로푸드 체험관’을 3월에 개관할

예정이다. 2층 규모의 이 체험관은 식당 80석, 가족실 등 숙박시설 5동, 홍보관 등을 갖추고 있으며, 슬로시티 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한다.

체험관은 청산도에서 생산된 ‘로컬푸드’ 식재료로 음식을 조리해 ‘청산도 밥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체험객에게 ‘슬로푸드’ 밥상을 제공, 건강한 전통 먹거리를 맛보는 즐거움도 선사한다.

한편 완도 청산도는 국제 슬로시티 연맹이 인증한 ‘세계슬로길 1호’ 개통, 슬로우 걸크 축제, 아름다운 자연경관 등을 보여주고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며 지난해 방문객은 33만명으로 전년보다 10만명가 늘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전 북

남원 농·특산물 설 선물로 인기

파프리카·목기·전통주 등 도시 소비자들 주문 쇄도

설을 앞두고 활황감과 전통함과, 목기(木器) 등 남원지역 농·특산물이 도시 소비자들의 명절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남원의 대표적인 농·특산물은 ‘지리산 고랭지 파프리카’, ‘춘향골 배’, ‘지리산 반달곰 사과’, 활꽃감을 비롯해 목기·전통주·주부, ‘황진이’ 전통한과 등 다채롭다.

◇고랭지 생산 과일·농산물= 해발 400~700m 고지대에서 생산되는 고랭지 파프리카는 지난 2001년부터 재배를 시작해 현재 35 농가(18.4ha)에서 연간 2200여t을 생산해 65억원의 조수익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일본, 대만 등의 해외 수출로 38억원 이상 외화를 획득하여 지역특화 및 남원 신선 농산물의 대표적인 수출 효과 작목으로 크게 자리 잡았다.

‘춘향골 배’는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많은 청정지역에서 재배돼 과즙이 많고 속살이 부드럽고 품질이 우수

해 전년부터 캐나다를 비롯한 대만 및 동남아와 유럽 등지로 수출되고 있다.

◇목기 등 특산물 인기= 예로부터 남원목기는 목재의 독특한 문양과 은은한 울림향으로 유명하다. 현재에도 건강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들로부터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다.

남원목기는 물푸레나무 등을 재료로 사용함으로써 견고하고 부드럽고 내구성이 강하며, 장인의 정교한 질 솜씨와 깃들여진 최고의 명품으로 손꼽힌다.

‘춘향골 전통한과’는 2010년에 농림부로부터 전통식품 인증을, 2011년에는 ‘바이 전복’ 상품인증으로 품질을 인정받았다.

국산 오미자와 산수유를 원료로 한 전통명주인 ‘황진이주(酒)(375ml·13도)는 농림부의 한국 전통주 품평회에서 8명의 소믈리에가 뽑은 최고의 전통주와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남대천 얼음축제 ‘추억의 동심속으로’ 관광객들이 무주군에서 열리고 있는 ‘제1회 남대천 얼음축제’를 찾아 숨어잡이를 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자연의 나라 무주, 추억의 동심 속으로’라는 주제로 17일까지 계속된다.

관객들이 무주군에서 열리고 있는 ‘제1회 남대천 얼음축제’를 찾아 숨어잡이를 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자연의 나라 무주, 추억의 동심 속으로’라는 주제로 17일까지 계속된다.

/연남뉴스

“정읍천 환경사업은 생태계 훼손”

시민단체 ‘호안석 쌓기 등 인위적 정비 안돼’

수생식물·어류·조류 서식지 파괴 재검토를

“지역신문 발행·유가부수에 따라 차등 지원”

신문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전북도 지역신문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2일 전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전북도와 호남 언론학회, 전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전북 기자협회 등 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우회창순천항대 외래 교수와 박민 전북민선연정 정책실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박민 전북민선연정 정책실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관·언 유착의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며 “신문사의 발행부수 및 유가부수에 따른 차등지급기준 등을 마련, 홍보예산

을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민 도 공보과장은 “홍보예산 기준에 대해서 조례에 넣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대하며 “유량언론을 키워낸 부실언론은 자연스럽게 도출될 것인 만큼 홍보예산을 감시하기 위한 조례제정은 반대”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 지역신문 지원 조례(안)는 위원장을 포함 9인 이내로 한정된 가운데 도지사·도의장·언론학회 등에서 1명씩 추천 배정했다. 또 언론노조·기자협회·시민단체·언론 시민단체 등에도 동등한 추천 권한을 부여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정읍시가 추진하는 ‘정읍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정읍시는 사업비 70억원을 들여 상동교에서 신월령교까지 구간을 대상으로 ‘정읍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읍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읍천 지키기 시민행동 준비위원회’는 16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읍천 환경사업이 하천 생태계를 훼손하고 수생식물, 어류, 조류의 서식지를 파괴한다”며 “현재 진행중인 하천환경 조성사업을 중단하고 치수차원의 제방 보강과

사업구간 중 상류 하천 침식구간을 제외하고는 현재의 하천 자연기능의 보호와 생태적 기능회복에 중점을 두고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준비위는 “정읍천 사업은 최소한 전주시방환경청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 입각해 시행돼야 한다”며 “하상평탄화, 무분별한 호안석 쌓기, 하천직강화 공사, 인위적인 삼각주와 하중도 조성, 하천생태를 교란시키는 외래종 식물 식재 등은 즉각 중지돼야 하며 자연하천의 원형이 남아있는 구간은 그대로 보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취재본부=백기섭기자 parkks@

또 준비위는 “시는 환경전문가, 환경단체, 시민과 함께하는 공동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사업을 재검토하고, 자연과 더불어 생명이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정읍천을 조성해 시민들의 자랑거리이자 안식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시가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한다면 집회와 1인 시위 등 구체적인 시민행동과 함께 사업중지 가치분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정읍천 환경사업은 하천 치수와 경관 개선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민·관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기섭기자 parkks@

뉴스 브리핑

모래내시장 이용객 시장 주변 평일 주차 허용

전주시는 모래내시장 이용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16일부터 모래내 지구대~생명과학고 양편 구간 160m에 대해 평일 주차를 허용한다. 주차 허용은 ▲출근시간(오전 7~9시) ▲퇴근시간(오후 6~8시)대를 제외한 시간대에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만 1시

간 허용되며, 전통시장 이용영수증을 제시하는 경우 30분 연장 주차할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설, 추석 명절에 모래내 시장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김제경찰,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김제경찰서(서장 이상주)는 겨울방학을 맞아 지난 12일 요촌동 모교회 중·고등학교생과 신도 등 6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김제경찰은 “최근 학교폭력은 단기기간의 집중적인 단속만으로

근절시키길 기대하기 어렵고 학교와 사법당국, 피해자와 가해자, 학부모는 물론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만이 학교폭력을 뿌리 뽑고 선량한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정읍보호관찰소,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정읍보호관찰소(소장 황창연)는 16일 관내 중·고교생 67명을 초청해 ‘법(法)이 놀자’라는 주제로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지원장 권혁중)이 청소년들에게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의 한 과정으로 마련됐다.

황창연 소장은 “이번 행사는 동화 속 법률퀴즈, 유튜브터스보 호관찰, ‘법은 내친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져 체험교육의 장이 됐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기섭기자 parkks@

국립 민속국악원 설맞이 국악 나들이

국립 민속국악원은 23일 예원당과 앞마당에서 설맞이 국악나들이 공연을 펼친다.

공연은 장구춤·소고춤·진도북춤을 새롭게 구성한 작품 ‘흥’을 시작으로 기악 합주 ‘신 뱃노래’, 단막 창극 ‘홍보가 중 마당쇠

글 가르치는 대목’, 민요, 판소리 등이 이어진다. 또 국악원 앞마당에서는 널뛰기, 제기차기, 팽이치기, 줄넘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가 펼쳐지며, 춘향골 특산물인 유과를 공연 관람자에 선사한다.

/전북취재본부=백기섭기자 bs8787@